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수입 가구 및 영화에 관세 예고 중국 기업에는 수출 통제 강화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위험 완화 vs.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으로 의견 상이
 - ECB 마클루 위원, 금리인하는 막바지 국면. 스페인 9월 물가는 15개월래 최고
 - 일본은행 노구치 위원, 금리인상 필요성 증가. 경제 및 물가의 상방 위험 확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하 기대, 연방정부 섰다운 가능성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주 강세,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AstraZeneca 등 제약주 강세 등으로 0.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인하 지속 전망,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0.6%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임시 예산안 관련 의회 합의 지연 우려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4bp 하락

※ 뉴욕 1M NDF 종가 1397.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9.7원, 0.07% 상승). 한국 CDS 상승

		9/29일	9/26일	전일대비			9/29일	9/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661.2	6,643.7	+0.26%	국채 금리 10y	미국	4.14%	4.18%	-4bp
	유럽	555.53	554.52	+0.18%		독일	2.71%	2.75%	-4bp
	중국	3,862.5	3,828.1	+0.90%		영국	4.70%	4.75%	-5bp
	일본	45,044	45,355	-0.69%	CDS 5y	한국	25bp	24bp	+1bp
	한국	3,431.2	3,386.1	+1.33%		중국	38bp	37bp	+1bp
환율	달러지수	97.94	98.15	-0.22%	위험 지표	EMBI+	-	347	-
	유로화	1.1727	1.1703	+0.21%		VIX	16.12	15.29	+5.43%
	엔화	148.59	149.49	+0.61%		WTI유	63.45	65.72	-3.45%
	위안화	7.1224	7.1345	+0.17%	원자재	구리	489.2	471.6	+3.74%
	원화	1,398.7	1,412.4	+0.98%		금	3,833.6	3,760.0	+1.9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수입 가구 및 영화에 관세 예고. 중국 기업에는 수출 통제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가구 및 영화에 관세 부과를 예고. SNS를 통해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가구 산업을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구에 대해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게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밝힐 계획
- 또한 영화 제작 산업도 다른 국가들에 빼앗겼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제시. 다만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모호한 상태
- 상무부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의 자회사(지분 50% 이상 보유)도 자동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발표.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에서 중국 기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을 고려했다고 분석. 중국 상무성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 발표
- 노동부는 연방정부의 섯다운이 발생한다면 10/3일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공개는 어렵다고 발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10/1일부터 섯다운이 시작. 한편, 8월 잠정주택판매지수는 전월비 4% 상승한 74.7로 5개월 만에 최고. 이는 대출금리 인하 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
-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수요 절반 규모의 칩 생산과 투자를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대만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을 대비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설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위험 완화 vs.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으로 의견 상이

- 미국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소 감소한 반면 고용 위험이 커지는 등 위험의 균형이 바뀌었다고 평가. 관세의 물가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며, 일부 수입제품 가격이 올랐으나 예상보다는 작았다고 언급
- 반면 클리블랜드 연은의 해맥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8년까지 목표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금리인하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발언

■ Goldman Sachs, 연말까지 글로벌 주가 상승 예상. 연준의 금리인하 등을 고려

- 크리스티안 뮐러 글리스만 스트래티지스트는 양호한 미국 경제 및 기업 실적,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고려할 경우 글로벌 주가는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또한 경기침체 위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

■ ECB 마클루 위원, 금리인하는 막바지 국면. 스페인 9월 물가는 15개월래 최고

-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인 마클루 위원은 ECB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막바지 국면에 있다고 언급. 다만, 금리경로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부연.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의 상·하방 위험 모두 크지 않다고 평가
- 한편 스페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3.0% 올라 전월(2.7%) 대비 오름세 강화되었고, 이는 1년 3개월 만에 최고 기록.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ECB의 금리동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분석

■ 중국, 투자 프로젝트 촉진 위해 5000억위안 규모의 정책금융 도입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금융 서비스 및 효과적인 투자 촉진을 위해 5000억위안 규모의 새로운 자금조달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 이번 계획은 디지털 경제, AI 등 8대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은행 노구치 위원, 금리인상 필요성 증가. 경제 및 물가의 상방 위험 확대

- 노구치 위원은 경제 및 물가의 상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금리인상의 필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발언. 이번 언급 이후 선물시장에서는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60%로 상승했고, 엔화 강세 및 국채금리 상승 등이 발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30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구인건수·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 발언
- ECB 라가르드 총재 발언, 독일 9월 소비자물가,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 중국 9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레이팅독 제조업 및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여러 불확실성 요인 고려 시 금리인하 예단은 금물 - 블룸버그

(Don't take the Federal Reserve's next cut for granted)

- 연준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p 인하했으나 향후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연준은 매파·비둘기파 모두에게 비판을 받는 상황. 매파는 인플레이션 압력 증폭 가능성을 지적하고, 비둘기파는 실업률 상승 우려를 강조
-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도전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9월 FOMC에서 위원들은 통화정책 관련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으나 이와 같은 단합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 특히 정치적 영향이 심화되고 물가안정 목표(인플레이션 2%)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

■ 미국 신용시장, 대규모 투자금 유입은 부실 자산 매입이라는 역설적 결과 유도 - WSJ

(The Credit Market Is Humming—and That Has Wall Street On Edge)

- 최근 신용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채와 투자적격 회사채의 스프레드는 0.74p로 하락하여 1998년 이후 최저(투기 등급의 경우 2.75%p로 '07년 이래 최저). 이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과 낮은 보상의 여건에서 자동차 대출업체(Tricolor Holdings)와 부품공급업체(First Brands)의 파산 신청은 경각심 부여
- 특히 2조 달러 규모의 사모신용대출은 관세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민간 부문 채무불이행 증가 등으로 위험이 증가할 우려.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등도 계속해서 신용시장의 어려움을 자극할 소지

■ 미국 트럼프 정책에 따른 신뢰도 하락, 여타 국가와의 갈등 심화 위험 고조 - 블룸버그

(Trump Has Lost Credibility Worldwide, at Huge Cost)

- 트럼프는 임기를 시작한지 8개월에 불과하지만, 외교 및 안보 정책 등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며 국제관계를 훼손. 이는 다음과 같은 행보에 기인. 첫째, 최근 유엔(UN) 연설 등에서 러·우 전쟁 관련 입장 변경의 반복.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위협 무시. 셋째, 첫 임기 때부터 현재까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방관
- 이러한 신뢰성 상실은 동맹국의 안보 대안 모색 및 적대국의 연합 구축을 초래하며 지정학적 위험도 증가. 향후 전세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금융시장, 글로벌 투자금 유입 확대. 첨단 기술 발전·인식 개선 등에 기인 - 블룸버그**
(China's Markets Shed 'Uninvestable' Tag as Global Funds Return)
○ '21년 이래 일부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부동산위기 및 엄격한 규제 등을 이유로 중국을 '투자부적격(uninvestable)'으로 인식. 그러나 최근 주가 상승 및 첨단 기술 발전 등으로 재평가. 금년에는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 전반에 글로벌 투자금 유입이 증가. 또한 일부 투자자의 FOMO(좋은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심리도 작용
○ 최근 對중국 글로벌 투자 증가는 펀더멘탈이 주요 동인인데, 이는 정책적 요인이 큰 영향을 나타낸 과거와는 다른 양상. 아울러 투자자 신뢰도 향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식 개선을 통한 자금 유입 증가는 중국의 위안화 위상 강화 목표에도 도움. 과거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인 일부 투자자, 시장 과열 우려 등이 존재하지만, 당분간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지속될 가능성
- **글로벌 경제, 정치가 시장과 경제를 지배하는 지경학의 영향력 확대 - Financial Times**
(The influence of 'geoeconomics' is growing)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주요 경제지표 발표 지연 시 불확실성 증폭 - 블룸버그**
(US Economy Will Only Get Murkier If Key Data Is Delayed in Shutdown)
- **미국 노동시장의 底해고·低고용 국면, 구직자의 취업난 심화를 초래 - 블룸버그**
(Millions of Workers Are Left Out of the 'Low-Hire, Low-Fire' US Job Market)
- **AI 붐, 초창기와 달리 과도한 부채를 활용한 투자 확대는 위험 - WSJ**
(Debt Is Fueling the Next Wave of the AI Boom)
- **수익성 저조한 중국 기업, 트럼프 관세에 따른 수요 감소로 추가 타격 예상 - 블룸버그**
(China Inc.'s Already Low Profit Margins at Risk From US Tariff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